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이미지 분석을 통한 고려속가  
교육방안 연구



2007년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서호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이미지 분석을 통한 고려속가 교육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쾌 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서호진

# 서호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월 일



주 심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고순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쾌덕 (인)

##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3
II.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7
1.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	7
2. 이미지 교육의 방향	16
III. 고려속가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23
1. <동동>의 이미지 분석	27
1.1. 원형적 이미지	27
1.2. 감각적 이미지	34
1.3. 교수-학습의 방향점 및 설계	45
2. <서경별곡>의 이미지 분석	48
2.1. 원형적 이미지	48
2.2. 감각적 이미지	51
2.3. 교수-학습의 방향점 및 설계	55
IV. 이미지 분석을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실제	59
1. 교수-학습 계획	59
2. 교수-학습 모형	65
3. 고려속가 작품의 교수-학습 과정안	85
V. 이미지를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	92
VI. 결론	98
참고문헌	101

## 표 차례

<표 1> ‘꽃’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	45
<표 2> ‘꽃’의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지도 방안.....	46
<표 3>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	56
<표 4>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지도 방안.....	57
<표 5> KEDI 시교육 단계의 교수-학습 모형.....	66
<표 6> 시구를 통해 살펴본 고려속가의 작가 의도.....	80
<표 7> 체재와 주제의 연관성.....	82
<표 8> <동동>의 교수-학습 과정안.....	86
<표 9> <서경별곡>의 교수-학습 과정안.....	88

## Abstract

### *The Study of Goryeo Sokga teaching Method through Image analysis*

Ho-Jin Se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o seek a effective approach teaching Goryeo Sokga, a classical songs and lyrics, this study is to analyse problems which will be highly occurred in the course of practical instruction, look for how the type of image and transferred use of imagination are expressed, and create a teaching-learning model with the 7th curriculum. Learners can get educational effects through those Goryeo Sokga works and what the teaching method is.

Goryeo Sokga has superior contents, beautiful forms, and literary expressions, forms astounding feeling, and great aesthetic sense to know directly, and is close current aesthetic sense in songs and lyrics, therefore it has considerable stature in a branch of literature.

As the approach using image is fully understandable without prejudice of authors' purposes, this study is focusing on it in the modern poetry studies.

This study is to look over the approach using image theoretically, go through how the approach can be applied, consider to amplify on the side of meaning on poetical sensibility and exercise imagination, and try to create a learner centered effective teaching method through a teaching-learning model.

Rooted from psychological things and esthetical things, a basic attribute of image has been used analyse of modern poetry. Image is a part of poem as well as it is related to the subject of poem. If you study what purpose authors expressed in Goryeo Sokga multiply, it is helpful to know the ancestors' thought and philosophy at that time.

This approach can increase students' imagination ability and creation ability, an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new by exploring the old and we can convince creating teaching-learning method is helpful to teachers as well.

---

Key words : Goryeo Sokga, teaching-learning method, image,  
learner center, create.

# I. 서론

## 1. 연구 목적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문학 과목의 목적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학을 즐기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과 통합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며 그러한 가치를 남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문학 발전과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학습자를 기르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sup>1)</sup>

그러나 우리의 교육 실정은 앞서 언급한 목표와 달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는 배제된 채, 교사가 주가 되는 분석 위주의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전 문학하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

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4』, 교육인적자원부, 1997, p.80.

그렇지만 고전 작품의 이해야말로 현대 문학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됨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 문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사상과 정서 · 경험 등이 축적되고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은 그 기초를 형성하는 밑바탕이다. 기초 없이 문학의 발전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선 고전 작품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고전 작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배움의 주체인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고전은 늘 어렵고 힘든 과목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작가는 생활 속의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완결된 구조 속에 담아낸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의 소재가 지닌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하여 받아들이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즉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수업형태로 인해 학습자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스스로 작가의 중심된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

시키고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흥미유발을 위해 현대시 이론을 고전시가 중 고려속가<sup>2)</sup> 분석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현대시에서는 작가의 관념이나 사상,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이미지와 비유, 상징 등 다양한 시적 표현 기법이 사용된다. 그들 중 ‘이미지’는 시 세계를 조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속가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고전 문학 중 고려속가에 나타난 작품들을 위주로 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도가 학습 효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접근방식이 고전시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하여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

2) 고려 속가(俗歌)는 고려시대의 <청산별곡> · <서경별곡> · <가시리> · <동동>등과 같이 ‘속악(俗樂)의 가사(歌詞)로 사용된, 우리말로 불린 시가류(詩歌類)’를 지칭하는 말이다. 속가는 고려속가 · 고려가사 · 장가 · 별곡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명칭 중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속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 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p.11~14.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는 어학적 접근과 문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전 문학을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는 고전 문학의 연구 성과는 후학들에게 많은 지침을 얻게 한다. 고전 문학 중 고려속가에 대한 많은 양의 연구 성과물들은 작품 일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지도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많았다. 여기서는 교육적 방법에 대한 연구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정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고려속요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체계를 논한 뒤, 고려속요 작품에 대한 정서적 요소를 문학 교육적 수용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고려속요의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sup>3)</sup>

허왕옥은 고전 문학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의 지향점을 전통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형성과 문학 능력의 신장,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으로 보고, 심미성, 관계성, 인간성의 원리를 통해 고전 문학 교육의 원리를 설정하였다.<sup>4)</sup>

김윤정은 기존의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대시

---

3) 이정도, 「고려속요론 - 정서체험과 내면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 허왕옥,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고전 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고전시가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시가의 정서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전시가의 교육적 가치를 도출하였고, 그와 더불어 문학 교육의 목표인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용, 창작 활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김시용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가요를 지도하는 실제 수업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방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sup>6)</sup>

위의 연구들은 고려속가에 내재되어 있는 문학적 가치들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다만 고려속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기엔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속가를 교육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새롭게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고전시가

---

5)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 전통이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와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교육은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해석위주의 교육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이 새로이 도입되면서, 문학 과목의 목적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켜서 문학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문학을 즐기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이론을 가지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접근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규합한 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과정을 통해 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그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현대시의 이미지 이론을 고전시가 분석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선 작품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차원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고 접근하여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켜 고전 문학이 갖는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 인식을 감쇄(減殺)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유형화된 현대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학 교육적 접근 방안, 문학 교육적 의의를 모색해봄으로써 고려속가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 Ⅱ.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 1.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

한 시인에 있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것은 자기감정과 사물, 혹은 그 사물에 반영된 상상력과 감정적 경험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사물은 시인이 그 사물을 이미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전후 관계의 연결과 함께 정서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비로소 생생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지는 신체적 지각에 의해 산출된 감각을 마음속에 다시금 재생시켜 놓은 것으로 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지는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바를 감각을 통하여 생생하게 독자에게 재생시켜 주는 것으로 이미지를 통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느끼게 하고, 그 감각에 기대어서 시인과 함께 구체적인 체험을 나누어 갖게 한다. 그래서 시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시 작품의 의미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시인 내부의 관념 또는

감각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 등을 암시적 ·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이나 주제의 형상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에서보다도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작품의 구조 전체를 밝힐 때 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곧 시세계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조성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시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 작품 속에서만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시적 반응은 이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며 구체화하는 것이다.<sup>7)</sup>

심리학의 용어에서 시작된 이미지는 단순하게 대상을 재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로 만들어진 그림이라 할 정도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해하게 된다. 즉, 추상적인 의미보다 대상을 온전하게 감각하고 인식하도록 자극하는 언어,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을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sup>8)</sup>

이미지는 보통 심상, 상, 영상 등으로 번역되며, 복합적 심상으로 또는 문맥에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이미저리(imagery)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미저리는 복수의 이미지, 즉 이미지의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시나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으레

---

7) 김학동, 『정지용 연구』, 새문사, 1988, p.3.

8) 김학동 · 조용훈, 『현대시론』, 새문사, 1997, p.96.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이미지가 제시되어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미지리라는 말의 사용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지와 이미지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면서 이미지 쪽의 사용빈도가 높다. 그래서 이미지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문학적 용법으로서의 이미지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sup>9)</sup>

첫째, 넓은 의미로서 이미지는 축자(逐字)적이든 묘사이든 비유에 사용된 보조 관념이든 한편의 시나 문학 작품 속에서 언급된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나 문학작품에 나타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지각 감각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이미지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미지라는 말이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이미지로, 혹은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좀 더 좁게는 이미지는 시각적 대상과 장면의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루이스도 시각적 회화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미지를 가리켜 언어의 그림이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9) 문학적 용법으로서의 이미지 정의는 아브라암스(M. H. Abrams)의 견해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김준오와 양왕용, 장도준이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김준오는 ‘이미지’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양왕용과 장도준은 “이미저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 용어 해석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미지는 비유적 언어, 특히 은유와 직유의 보조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미지의 범주를 국한시킨 것이다. 직유와 은유를 통한 이미지의 표현은 이미지를 한층 구조적인 측면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비유적으로 묘사되든, 축어적으로 묘사되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모든 감각적 지각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며,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이 비유적인 측면이고, 이미지로서의 형상화는 구체화 혹은 구상화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에서 이미지는 개별의 독립된 시어나 어구, 더 나아가서 비유로만 규정할 수 없는 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sup>10)</sup>

이미지는 시의 운율, 문체, 문법의 세계, 시점, 압축의 방식과 확대 방식의 선택과 생략의 방법, 행동, 인물, 사상의 양상들과 적절히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시적 요소들과 적절히 통합되면서 이미지가 시 속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알 수 있다.

시 속에서 이미지는 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지의 정의 속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다. 시인은 전달하고 싶은 관념이나

---

10) 장도준, 『현대시론』, 태학사, 1995, p.142.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들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킬 수단을 찾는다. 이 수단이 이미지다.<sup>11)</sup> 다시 말하면, 이미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지의 기능은 파운드가 이미지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여 시의 아주 중요한 구성물로 여기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노드롭 프라이(N. Frye)와 루이스(C. D. Lewis)에 의해 그 기능적 측면이 부각된다. 프라이는 이미지가 제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가, 우리 내면세계를 자극하는 면,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서와 연결시켜 주는 구실 등을 한다고 보았다.<sup>12)</sup>

반면 루이스는 이미지의 기능을 신선미, 강렬성, 환기력 3가지로 설명한다.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신선미이다. 신선미는 일종의 생명감 내지 쾌감을 뜻하는 것으로, 시인의 재창조인 객체와 감각의 동시 수용이라든가 그 결과로 빚어지는 정밀성과 계시성의 확보가 이미지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곧 이미지가 우리에게 새롭고 산뜻한 세계를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둘째, 강렬성이다. 그는 강렬성의 하위 기능으로 두 가지를 포함시킨다. 그 하나는 우리

---

11) 김준오, 『시론』, 삼지사, 1997, p.159.

12) N.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13) C. Day. Lewis, 『The Poetic Image』, A.W.Bain & Co.Ltd. London. 1958.

가 시의 속성으로 생각하는 함축적 의미 사용이라든가 언어의 탄력감, 긴축미 같은 것을 가리킨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지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 확보이다. 이것은 이미지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가 하나의 형태, 구조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보고 있다. 셋째, 환기력이다. 환기력은 루이스에 따르면 정서적인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에 따라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환기력이 정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간주한다.

윤석산<sup>14)</sup>의 경우 이미지의 기능을 보다 세분화시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지의 기능을 6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첫째, 시의 의미를 육화시키는 기능이다. 이것은 가변적이고 모호한 정서나 상상력을 이미지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을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이다. 이때 모방의 대상은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시인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관념이나 정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사물과 관념을 창조하는 기능이다.

---

14)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pp.372~377.

넷째, 독자의 자율적 해석권을 확대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이미지화의 대상과 수법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한다. 시를 창작하는 시인이 상상력에 의하여 창조된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 인과 관계를 배제한 채 병치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최대한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 직유나 치환, 은유처럼 시인이 직접 연결하면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전체 의미를 하나로 수렴하거나 확산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 또한 이미지화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정지용의 시편의 경우처럼 구체적 대상을 묘사할 경우에는 수렴의 기능이 작용하고 확산의 기능은 대상을 추상적으로 은유하거나 병치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이미지들이 환기시키는 정서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제재를 다룬 작품도 시인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동원된 이미지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각기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기능과 관련해 시 교육에서 의미를 갖는 이미지의 표현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감각을 재생시킨다.

둘째, 의미를 전달하거나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셋째,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넷째,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다섯째, 시어의 함축성과 긴축미를 높여 준다,

여섯째, 독자에게 반응을 유도하여 시의 정서와 연결시키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시적 성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의 하나는 시인이 얼마나 새롭고 적절한 이미지를 창조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오늘날 시는 이미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데, 이미지즘 운동의 선구였던 홉(T. E. Hulme)이 “시인에 있어서 이미지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언어의 정수 바로 그 자체”<sup>15)</sup>라고 언급한 것도 시에 있어서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이다.

이미지즘 운동의 선구적인 시인의 한 사람인 E.파운드는 “방대한 저작을 창작하는 것보다 한평생에 하나라도 훌륭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낫다”<sup>16)</sup>고 주장했다.

시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은 어떤 대상을 차용한 정

---

15) T. E. Hulme의, 윤지관 역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p.17.

16) E. Pound,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ed. by T. S. Eliot, Faber and Faber Ltd, 1985, p.4.

도에서 그치지 않으며, 하나의 사물에는 시인의 세계관, 정신세계 등이 투영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계는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도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주체의 인식에 의해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가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상상력이란 지각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애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sup>17)</sup>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창조의 상상력은 관조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문학적 감식 능력과 상상력의 표출 및 발현이라는 문학 본연의 목표와 함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핵심적인 원리인 이미지를 통해 고려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속가 또한 한 작가에 의해 창조된 창작물이라면 대상을 노래할 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미지로 새롭게 변형시켜 표현함은 당연하다. 그러

---

17) Gaston Bachelard, 정영한 역, 『공기와 꿈』, 민음사, 1993, p.10.

한 이미지를 찾아보고 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상상해 봄으로 낮설고 어려운 고전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이미지 교육의 방향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고려속가의 경우 어석위주의 단편적인 전달식 수업에 치우쳐 있어, 학습자 스스로 접근하여 익히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고려속가에 접근하고 이해하게 하여 학습능력을 기르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브룩스에 의하면 시는 생활과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시인 자신의 계발적인 표현방식으로서 심미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미지는 시적 통찰과 해석의 도구로서 관념의 표출과 장식에 있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표출은 은유와 상징 등에 의해 구현되므로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실상 은유 분석과 상징 분석에 있어서의 상관과정 내지 부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흔히,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여 근육감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정 · 동적 이미지,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 등으로 나타난다.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서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해석과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서의 이미지 교육을 지양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이미지가 시의 한 요소로서만 존재하며,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주제의식과 미의식이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에서 이미지 지도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시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 연상 작용을 하기 위한 개별적인 시간을 부여한다. 시적 분위기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시를 읽고, 떠오르는 영상과 심리적인 요소 등에 대해 표현하는 과정이다. 셋째, 학습자의 심리 공간에 형상화된 이미지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이미지화된 대상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 그 의식과 주제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교수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학습 방식에서 탈피하여 작품의 독자로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시작품 속의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개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비평가로서, 새로운 창조적 주체로서의 역할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노래라는 장르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감상 능력을 인정하고, 소규모의 그룹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들이 토의나 토론 학습 등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어야 하며, 내면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언제나 끊임없는 모험 앞에 서 있다’는 엘리엇의 말을 상기해본다면, 독자 역시 텍스트라는 새로운 지평 위에 늘 모험을 떠나는 입장에 서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자가 텍스트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된 삶의 총체적 모습과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간의 갈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내면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인지적, 정의적으로 한층 고양된 지평을 형성하게 되는 단계로서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읽고 배우는 일은 객관적 기술이나 분석보다는 학습자

의 직접적인 체험으로써 재창조되어 재현 흡수하는 일이므로,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체험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와 내면화의 과정을 원활하게 유도해 주는 지도 방안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 자신이 작품 수용의 주체가 되어 작품 제재와 관련된 체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하나의 상(像)과 함께 일차적 의미를 형성하고, 다양한 체험을 교환하여 체험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를 재구성한다. 자기를 표현하는 창작의 체험과 더불어 내면화시키는 일련의 과정, 창조적 체험을 중심으로 나아가갈 때 참다운 교육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안의 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의 창의적, 창조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심미적 전환을 통해 정의적 영역을 넓혀가는 다양한 의미 창출의 장으로서의 학습 과정을 지향한다.

첫 단계에 있어서는, 동기 유발에 중점을 두는 학습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동기 유발 과정은 네 가지 유형<sup>18)</sup>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학습 회상형 동기유발, 둘째 학습 분위기 조성형 동기유발, 셋째 관련 경험 유인형 동기유발, 넷째 학습 과제 확인형 동기유발 등이 있다.

---

18)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의 수업전개 방법」, 『미원 우인섭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6, p.648.

단위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학습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며 조율해 가느냐에 따라 수업의 전체적 과정과 효율에 있어, 수용적(acceptant)이 되느냐, 강요적(executional)이 되느냐가 가름된다.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텍스트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때 교사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텍스트로 접근시킨다. 여기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전모를 처음으로 경험하며 텍스트를 개관할 수 있다. 텍스트의 관문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텍스트 접근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작품 지도 단계의 처음 과정은 낭송(낭독)에서 시작된다. 운율과 정조를 살림으로서 작품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히 문자 언어에서 음성언어로의 전환이 아니라, 낭독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의 길잡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작품에 있어서 낭송은 텍스트의 구두해석(oral interpretation)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셰턱(R. Shattuck)<sup>19)</sup>은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

19) 로저 셰턱, 「목소리로(Viva Voce)」, 『비평과 문학교육』, 포올 헤르나리 엮음, 최상규 역,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pp.141~146 참조. 첫째, 텍스트에 생명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시킨다. 둘째, 새로운 경험이나 감각에 대한 개방성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셋째, 말소리의 효력과 중요성을 일깨운다. 넷째, 목소리를 통제하고 표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 다섯째, 공개적인 행위로서 많은 관찰자들에게 공동 체험을 하게 하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확대, 상호작용에 의한 해석과 토론을 가능케 한다.

방법으로서의 텍스트의 음성화를 주장한다.

각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에 대한 결과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정리하고 구성된다. 작품을 재음미하며 작품 세계에 몰입하도록 한다. 처음 작품을 대할 때와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수용자 입장에서 비로소 대상을 자기화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작가의 시대상황에 비추어서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향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의 감상 내용 정리, 발표. 둘째,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서 비춰지는 작품의 의미 분석. 셋째, 상호 텍스트성 활용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는 창조적 단계이다.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의미 생산에 참여하고, 그 참여과정에서 새로운 기대와 인식의 전환을 마련함으로써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 구성물이 학습 활동의 산물로서 제시될 수 있도록 장치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작품의 모티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련 정서 체험과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창조적 활동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각각의 작품들

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공간적 이미지들과 그에 관련되어 확장된 작품의 이미지를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인 창작 과정에서는 텍스트의 부분적, 전체적 변형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체험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에 있어서, 수업의 초점 및 중요한 단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될 것이다.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반응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워야 하며,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을 세울 수 있도록 독서 후 개인적인 감상과 명상의 시간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토의를 통해 고양시키며, 작품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노력 정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독자 반응 중심의 단계에 따라, 텍스트의 이미지 파악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심미적 경험을 심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즉,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지 연상 작용과, 이미지 분석, 이미지화 된 대상에의 접근 방식 및 주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려속가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그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Ⅲ. 고려속가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이미지에 관한 논의 가운데 이미지 유형의 분류는 쉽지 않으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로 나눈다. 다양한 이미지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징적 이미지에 속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지각적 이미지에 속하는 감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형적 이미지의 경우 어떤 다른 이미지 유형보다도 보편적인 상상력과 의식의 반영으로서 사람이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심층의 기저에 공유된 세계로부터 퍼 올린 정신 유산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문학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시인은 근원적인 통찰력과 원형적인 유형에 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 형식을 통해서 내적인 체험을 바깥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자이고, 근원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자질을 지닌 사람이라고 융은 말했다.

시에서 중시되는 상상력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 경험적 삶의 개체성에 좌우되지 않는 그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만 그 보편적인 상상력이 개체적인 우리들

각자의 내부에서 더욱 깊고 본원적인 자아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 따라서 원형이란 기실 이와 같은 상상력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한결 정확히 말해 상상력의 궁극성을 표현하는 이미지라는 것이다. 융의 경우, 이러한 보편적 궁극성과 접맥되어 있는 원형적 상상력은 어떤 상황에 대한 본능적이고 심리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가져오게 하며, 외부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절한 것 같지 않지만, 시 의식을 지배하는 핵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면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원형은 보편적 인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의 집적이며, 어둡고 원시적인 심리가 가지는 본능적 데이터, 즉 실재하나 보이지 않는 의식의 뿌리를 나타내거나 의인화하기 때문에 이의 해명은 바로 본능과 실체의 해명이라는 말이 된다 하겠으니 원형적 상상력은 궁극적 의미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시 정신 자체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월 라이트는 보편적 상징으로서의 원형 모티프와 이미지에 대하여 이 같은 상징은 인간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꼭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로서 아버지인 하늘, 어머니인 땅, 빛, 등과 같은 상징이 서로 간에 시 · 공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들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 영향과 우연한 관계도 있을 법하지 않은 상이한 문화들 간에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up>20)</sup>

의식을 초월한 영원한 실체로서의 본능적 자화상, 변형된 심리과정, 혹은 원초적 심상으로서 존재하는 원형은, 개인의 삶과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창조의 정신적 핵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은 시적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 하나의 통로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고대 동양 사람들이 지닌 자연관의 특징은 자연물을 존재 그 자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속성이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인간사와 관련지어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인 구름 · 돌 · 물결 · 해 등도 그것을 객관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쉽 없이 흐르고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하는 이념의 표상으로 보았다.<sup>21)</sup> 이러한 자연관은 문학 작품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작가의식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고려속가 문학교육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려속가에 나타난 원형적 이미지 중,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존재로서의 꽃의 이미지, 생명의 원천적 상징과 그에 상반되는 소멸, 재생 이미지로서의 물의 이미지, 기원의 대상이

20)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7, pp.202~205.

21)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p.17.

기도 하며, 그리운 임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감각적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복잡한 모양을 지각할 때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단순하고 쉬우며,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지각 방식이 문학에도 적용된다고 볼 때, 이미지 형상화는 감각적 사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이미지는 그것을 표현해 내는 주체의 정신적 · 심리적 존재가 미리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가 존재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지각을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다양함은 우리 몸의 감각의 다양함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 몸의 감각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의 형성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22)</sup>

언어의 상당부분을 감각적 이미지가 차지하고 일상 어법과 관련된 이미지의 특성은 그대로 시 작품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감각적

---

22)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p.28.

체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작자가 자신의 사고를 감각적 사고로 전환하여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각적 이미지나 관념적 이미지를 감각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자는 이미지의 완성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대부분의 이미지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만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작자가 지각한 세계를 독자가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작품 이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감각적 이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추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을 재창조하고, 자신의 이미지로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작가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감각적 이미지이다. 이를 고려속가 교육에서 살펴봄으로 작품 이해와 작가의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고려속가 중 <동동>과 <서경별곡>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동동>의 이미지 분석

### 1.1. 원형적 이미지

꽃을 노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꽃’을 객관적 대상으로서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꽃’의 존재 의미와 존재 방식을 내면적 울림 속에 일어나는 파장과 같은 양식으로서 주관화시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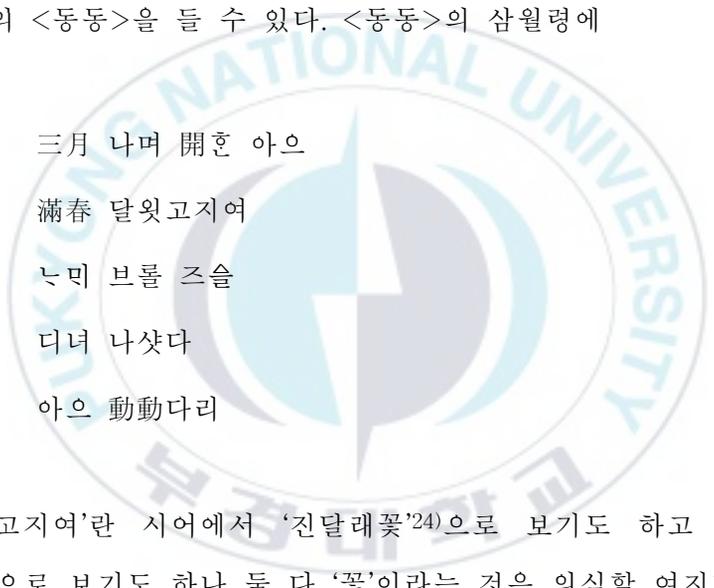
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미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생활양식 가까이에 있어 왔고, 문학, 예술에 있어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 변용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다. 꽃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그 진한 향기와 빛깔 속에 내밀한 생명력, 생성의 원리가 담겨 있으므로, 시인이 꽃과 만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초월하여 신비한 생명력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대상으로서의 ‘꽃’은 그 자체로서 시인의 미적 감수성과 사상을 표현해주는 주요한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꽃’의 존재 의미는 노래하는 시인에 따라 제각각 다른 형상으로서 채색되어 피어나며, 대지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띠게 된다.

꽃은 고시가에서나 현대시에서 흔히 여성적 이미지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꽃의 여성 상징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사실인데, 그것은 여성이나 꽃 양자 모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의 유추이기도 하며 모계사회 원리의 잠재적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대지에 씨를 뿌려서 생명이 탄생하는 자연의 질서에서 볼 때, 여성도 이러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자연적 존재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대지 혹은 자연은 바로 여성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꽃’으로서 시인 특유의 시세계를 이룩한 예를 살펴보면, 작자 미상의 <동동>을 들 수 있다. <동동>의 삼월령에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 달윗고지여  
늑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달윗고지여’란 시어에서 ‘진달래꽃’<sup>24)</sup>으로 보기도 하고 ‘오얏꽃’<sup>25)</sup>으로 보기도 하나 둘 다 ‘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꽃의 원형적 이미지로서 ‘입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꽃’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선 시적화자를 여성<sup>26)</sup>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꽃’의 이미지

23) 홍신선, 「꽃 혹은 생명에의 원초적인 집착」, 『현대시학』, 1974. p.42.

24)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8, p.86.

25)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71, p.94.

는 ‘입’이고 ‘입’은 여성이 흠모하는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꽃의 이미지는 항상 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석가> 3연에

玉으로 蓮入고즐 사교이다

玉으로 蓮入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호요이다

그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그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有德호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에서는 ‘입과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마음’을 ‘옥으로 만든 연꽃’으로 읊고 있다. 즉 자신의 속마음을 ‘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많고 많은 꽃 중에 하필이면 연꽃을 소재로 삼아 입과의 영원

26) 이 노래는 시상(詩想)이 일관된 흐름을 보여 주지 않을뿐더러, 각 연마다 나타나는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사(序詞)와 2, 3, 5월령은 입에의 순수한 송도(頌禱)이다. 이때의 ‘입’은 입금이거나 입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公的)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정월, 4월령은 개인적 정서, 즉 구체적인 서정적 자아의 고독이며, 입에 대한 원망적 호소이다. 6, 7, 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의 애환(哀恨)이 함께 융합된 중간적 정감의 노래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원래 연가적(戀歌的) 민요가 궁중에 흘러들어 궁중 연악(宴樂)으로 쓰이면서 변형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까? ‘연꽃’은 동양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신화나 종교적 설화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영원한 꽃이다. 흰 연꽃(白蓮花)은 『법화경』에서 최상의 진리로 상징된다. 이 꽃은 흠탕물(煩惱) 속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수면 위로 그 찬연한 아름다움을 내보인다.<sup>27)</sup> 묘한 진리의 세계에 비유되는 연꽃은 불가사의한 우주의 생명력을 감싸 안고 있는 신비의 꽃이다.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에 ‘연꽃’을 소재로 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했을 것이다.

또한 <만전춘별사> 2연의 ‘복숭아꽃’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탄식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화자는 복숭아꽃과 상황을 대조하여 인식하고 있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매체로 보고 있다.

耿耿(경경) 孤枕上(고침상)에 어느 즈미 오리오

西窓(서창)을 여러흐니 桃花 | 發(발)흐두다

桃花(도화)난 시름업서 笑春風(쇼춘풍)흐는다 笑春風(쇼춘풍)흐는다

27)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란다. 그러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 피우는 사람을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이제염오(離諸染汚)의 특성을 닮았다고 한다

『악장가사(樂章歌詞)』

복숭아꽃과 화자를 대비한 것은 세속에 있는 화자는 이별과 슬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입과 함께 사는 것이라 볼 때, 작자는 동양적 이상향을 뜻하는 도화(桃花)를 소재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양적 이상향으로 볼 수 있는 ‘꽃’으로는 복숭아꽃 외에 ‘살구꽃 · 자두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동양 한자 문화권의 이상향으로서 선경(仙境)의 모습이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다. 조선 초기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도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보듯이 우리 문학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낙원 표상으로서의 도화(桃花)이다. 이는 현대시 박목월의 <산도화(山桃花) 1> 2연에도 “산도화 / 두어 송이 / 송이 버는 데”라는 시구로 나타나는 이상향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동동>에는 달의 원형적 이미지도 있다. 우리는 예부터 ‘해’의 열정과 눈부심을 숭상하는 듯하나, 실로 우리 조상들이 모신 것은 ‘달’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성성과 밝음, 직관적 강렬함을 상징하는 ‘해’와는 달리 ‘달’은 여성성과 함께 신비스

러움과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기에 은유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학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달’이었다. 기원의 대상이기도 하며, 그리운 임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등, 문학에서의 그 의미는 다양하다. 이는 현대 문학에도 이어져서 때로는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여 전체 분위기를 뒷받침해주기도 하며, 때로는 작품의 주제로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현전하는 고려속가 가운데 ‘달’ 이미지가 나타나는 작품은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와 <정과정(鄭瓜亭)>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삶이 정서를 일상적 사물에 투사하여 나타낸 고려속가의 양식적 특성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속가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들어 화자의 정서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이런 구체적 일상성에 주목한 김대행은 고려속가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환유적 표현의 구비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sup>28)</sup> 고려속가에 나타나는 소재를 유사한 이미지에 따라 분류하면, ‘넷물, 연못, 우물 / 국화, 배꽃, 오얏꽃, 紅桃花, 桃花, 꽃 / 피꼬리, 접동새, 새 / 밤(栗), 만두, 누룩, 술, 조개, 약 / 大同江, 바다, 모래, 배(舟) / 靑山, 玉山, 南山, 돌 / 사슴, 소 / 비, 눈, 서리 / 달, 殘月曉星 / 호미, 낫 / 님, 어

---

28)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pp.63~65.

머니, 아버지, 눈썹 / 땃잎자리, 이불, 길쌈베, 갑옷 / 蓮燈, 혜  
 금, 七寶, 구슬 / 젓가락, 빗, 연(鳶) / 밤(夜), 새벽, 아침' 등과  
 같다. 화자가 일상적인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 대부분  
 이고, 이 사물들은 대부분 제1기의로 쓰였다.<sup>29)</sup>

前 腔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즈 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 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 가논 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악학궤범(樂學軌範)』

## 1.2. 감각적 이미지

29) 허왕욱,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읽기」, 『청람어문교육』 26집, 2003, p.331.

이미지의 기본적 기능은 감각적 체험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미지만 말로 던져 주는 세속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시각과 관련된 표현 또는 인상만을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미지는 모든 종류의 감각과 관련된다.

감각적 이미지는 주로 묘사나 비유를 통해 감각적 인상을 재현하는 이미지이다. 인간은 자연의 복잡한 모양을 지각할 때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단순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한다. 작품 속 이미지는 감각적 사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학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시가 창작 주체의 감각적 사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 체험을 통한 시적 감수성을 체득하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대부분의 이미지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만 관념이 틀을 벗어나서 창작주체가 지각한 세계를 독자가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로부터 관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해 행해진다.

앞서 고찰한 원형적 이미지가 인류 보편적 정신 유산을 바탕으로 한다고 봤을 때, 감각적 이미지는 시인의 독특한 감성이

발현되는 개성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미지의 특질과 심미적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독창적 관점과 시적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는가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러한 감각표현에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내면에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각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감각적 이미지에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이 있고, 어떤 한 감각을 다른 감각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재생하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 시각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회화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주로 색채 이미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물 또는 인간의 움직임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미지의 구상화에 기여한다. 청각적 이미지는 특정한 청각적 효과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주로 의성어를 살린다고, 사물의 소리를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각적 이미지는 특정한 냄새에 작용하는 이미지로, 미각적 이미지는 맛에 작용하는 이미지로, 촉각적 이미지는 피부 감각에 작용하는 이미지로 쓰인다. 심지어는 무게 감각, 운동 감각(대상의 움직임의 지각), 기관 감각(고동, 맥박, 호흡, 소화 따위의 지각), 근육 감각(근육의 긴장의 자각) 등도 이미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감각적 이미지라고 부른다.

고려속가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감각적 이미지가 더러 사용되었고 작가의식과 연관 지어 생각함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동>은 「악학궤범」에 전하는 작자 · 연대 미상의 고려속가이며, 서사를 포함한 전편 13연의 월령체로 정월령부터 십이월령까지, 열두 달의 세시 풍속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님’에 대한 사모의 정을 읊은 노래<sup>30)</sup>이다.

<동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요<sup>31)</sup>,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제의가<sup>32)</sup>,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가<sup>33)</sup> 등 여러 견해가 엇갈려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닌 복합적 성격에서 오는 것이다. 본디 민속과 관련된 단순한 민요 혹은 제의가(祭儀歌)였던 것이 궁중음악으로 채택되면서 서정적인 노래로 변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동>이라는 제목은 매장마다 되

---

30) 이능우, 「고려가요의 성격」, 『고려가요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82.

임기중, 「고려가요 동동」, 『고려가요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78.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8.

정병욱 · 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31) 김열규, 「고려사회의 민속과 무속」,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82, p.108.

임동권, 「<동동>의 해석」,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p.56.

32) 김무현, 『향가 여요 교육론』, 집문당, 1997.

33)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7.

풀이되는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에서 따온 것이다. <동동>은 북소리의 구음(口音) <동동>을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sup>34)</sup>와 '다리'·'두리' 등과 같이 '영(靈)'을 뜻하는 주술어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동동>의 가사는 『악학궤범』 권5에 가사 전편이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

34) 정병욱 · 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p.125.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 달윗고지여  
늑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믄  
넛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믄 힐 長存ㅎ살  
藥이라 받줍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다호라  
도라 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스 보로매 아으  
百種 排호야 두고  
니믈 혼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스 보로든 아으  
嘉俳나라마른  
니믈 피셔 녀곤  
오늘낯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흐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훈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八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음 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八 분디남기로 갓곤  
아으 나술盤잇 저다호라  
나의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악학궤범(樂學軌範)』

대체로 <동동>은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청각적 이미지가 중간에 삽입되어 음악성과 시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미각적 이미지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월령의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흐논디’란 표현에서 화자와 대조되는 시냇물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내었고, 이월령의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라고 하여,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임의 모습을 등불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 삼월령의 ‘三月 나며 開흔 아으 / 滿春 달웠고지여’에서 늦봄에 핀 진달래꽃에서 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표현, 사월령의 ‘四月 아니 니저 아으 / 오실셔 곳고리새여’에서 상사(想思)에 몸부림치는 여인의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서려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시각과 청각적으로 처리하였다. 유월령의 ‘六月 入 보로매 아으 / 별해 브룬 빛다호라’에서 벼랑에 버린 머리빗같이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자신의 처지를 시각적으로 그려냈으며, 구월령의 ‘九月 九日애 아으 / 藥이라 먹논 黃花’에서 미각과 후각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중앙절에 먹는 황화전(黃花煎)의 맛과 황화전의 재료인 국화꽃이 집안 가득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여, 임이 안 계시는 초가가 더욱 적막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시월령의 ‘저미연 브룻다호라’, 십이월령의 ‘아으 나술盤잇 저다호라’라는 표현 속에도 화자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시각적으로 처리하여 표현하였다. 십일월령에 ‘十一月八 봉당 자리에 / 아으 汗衫 두퍼 누워’에선 고독과 추위에 떠는 화자의 외로움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정읍사>에 등장한 달은 화자의 위치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쪽을 비추어주고 있다. 달의 이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삼각형의 꼭짓점에 있는 달의 능동적인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 달이 화자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이미지는 고전시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달’의 이미지이다.

前腔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山(산)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附葉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르시리이다.
大葉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三葉            물헛마리신더  
 四葉            술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룰 험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악학궤범(樂學軌範)』

<정과정(鄭瓜亭)>에 등장하는 달은 <정음사>의 달고 다른 성격을 지닌다. <정음사>에서 ‘달’ 이미지가 실물에 근접해 있는 반면에, <정과정>에서 달은 상징적인 시어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잔월효성(殘月曉星)’을 다른 시어들-하늘, 강산, 접동새 따위-로 대체할 경우에도 작품의 문맥적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데, 문맥적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의 사물성에서 멀어져 하나의 상징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새벽녘에 희미한 빛으로 넘어가는 달의 이미지가 ‘잔월(殘月)’이라는 말에 담기지 않는 이 같은 현상은 달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sup>35)</sup> 이때의 달을 천지신명이나 절대적 존재로 보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하였다.

35) 허왕욱, 앞의 책, p.332.

### 1.3. 교수-학습의 방향점 및 설계

꽃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인류 보편적으로 표상되는 의미의 심층에 보다 근접시켜 나가면서 시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꽃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을 실시한다.

#### <표1>꽃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

1. 일반적으로 ‘꽃’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

- 꽃을 통해 환기되는 이미지, 상징을 유형화시켜 본다.
- 꽃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 정서와 개인적인 정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꽃의 일반적 상징

2) 문학, 예술적 상징

-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미적 가치에 대해 각각 표상하는 바를 논한다.

‘꽃’에 대해 일반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의 꽃’이란 표현 역시 꽃이 갖는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표성, 중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이와 연계된 꽃의 속성에 대해 논한다.

2. 일상적 삶 속에서 꽃을 주고받는 행위와, 꽃이 삶 속에서 어

떠한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를 논한다.

3. ‘꽃’을 소재로 삼은 시나, 작품들에 대해 논의해보자.

각각의 작품에서 구현된 꽃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현대 시도 가능)

4. ‘꽃’에 관련된 속담이나 고사 성어를 통해 선인들이 ‘꽃’에 대해 인식하고, 표현한 방식을 파악해본다.

5. 자신이 알고 있는 꽃말을 소개한다.

예) 국화 - 사랑, 진실

진달래 - 사랑의 희열

장미 - 사랑, 우정, 존경

배꽃 - 연모

연꽃 - 순결, 청순한 마음

복숭아꽃 - 사랑의 포로

<표2> ‘꽃’의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지도 방안

<서경별곡>을 기본 텍스트로

	전개 내용	단계별 유의 사항
도입	1) 동기 유발 단계 ⇒ 선수 학습된 문학 작품들을 통해	개별적 감상단계를 거쳐서 그룹별 토의 발표

	<p>인식하고 있는 ‘꽃’의 이미지에 대해 토의한다.</p> <p>2) 텍스트 접근</p> <p>전개 ⇒ 이 작품에 나타난 ‘꽃’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작품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한 이미지들이 주제 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p> <p>⇒ 형상화 된 ‘꽃’의 원형적 정서에 대해 정리, 발표한다.</p> <p>⇒ ‘꽃’이라는 물질이 정서적으로 환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p> <p>정리 3) 내면화 단계</p> <p>⇒ ‘꽃’이 갖는 다양한 원형성 가운데, 다른 이미지를 택하여 창작한다.</p> <p>⇒ ‘꽃’이 갖는 다양한 원형적 이미지를 살려서 구축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본다.</p> <p>⇒ 상호텍스트에 의한 감상단계 김소월의 ‘산유화’ 텍스트의 ‘꽃’의 이미지 분석, 원형적 이미지 분석</p>	<p>단계로 이어진다.</p> <p>‘꽃’의 이미지는 그 자체의 원형적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성으로서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살려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한다.</p>
--	---	--

## 2. <서경별곡>의 이미지 분석

### 2.1. 원형적 이미지

일반적으로 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재생과 회복, 그리고 회귀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sup>36)</sup> 또한, 모든 생명체의 발원지요 고향으로서 동경과 그리움의 시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인간의 원형적인 집단무의식 속에는 그들의 원초적 삶이 잉태되었던 생명의 발상지에의 향수가 내재해있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7)</sup>

N. Frye는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묵시적인 상징에는 <생명수>가 있으며 이것은 신의 도시에 다시 나타나는 에덴동산에서 발원하여 여기서부터 갈라진 네 개의 강이며 제의에서는 세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묵시적으로 말하면 물은 한 인간이 체내를 혈액이 순환하듯 우주의 체내를 순환한다.<sup>38)</sup>

---

36) 김준오, 앞의 책, p.217.

37) 오세영, 「한국문학과 바다」, 『20세기 한국시의 표정』, 국학자료원, 2002, p.308.

38) N.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물은 전통적으로 보통의 죽음 또는 생활 기능의 감퇴에 뒤따르는 혼돈과 사멸의 상태인 인간 생활의 대계라고 했다. 휠라이트의 원형상징으로 제시한 생의 모태, 죽음과 재생, 영원성, 무의식 외에도 출항의 장소로서 출항은 도달해야 하는 對岸을 향한 떠남으로서 보다 나은 세계 지향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한 출발, 낭만적 동경의 이상 지향,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피에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일탈일 수도 있다.

G. 바슐라르는 ‘물’의 원형적 성질을 논하면서, 물은 운명의 한 타입이며, 그것도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 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9)</sup>

물은 항상 흐르며 물은 항상 떨어지며, 그리고, 항상 수평적인 죽음으로 끝난다. 우리는 물의 이미지에 아직 살고 있으며 때때로 그것에 불합리한 집착을 하면서 최초의 복합성 속에 총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sup>40)</sup>

바슐라르는 ‘물’의 깊은 모성성에 주목하여, 물질 원소의 모든

39) 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서울 : 문예출판사, 1980, p.13.

40) Gaston Bachelard, 앞의 책, 1980, p.15.

결합을 무의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소박한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물에 예속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있으며, 물은 순수함의 모든 이미지들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시적 상상력에 있어서 물의 언어는 직접적인 시적 현실이며, 시냇물과 강물은 말없는 풍경을 기묘할 정도로 충실하게 유성화 한다는 것, 졸졸 소리를 내는 물은 노래하고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것을 새와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즉, 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sup>41)</sup> 논하였다.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

41) Gaston Bachelard, 앞의 책, p.27.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빗타들면 아즐가 빗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악장가사(樂章歌詞)』

G. 바슐라르가 말한 ‘물’의 원형적 성질은 운명의 한 타입이며, 그것도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 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라는 생각이 <서경별곡> 3연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푸른 물결을 앞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직 임의 사랑만을 애원하며 하소연한다. 한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즉,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않을까’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 2.2. 감각적 이미지

이 노래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음미할 수 있다. 첫 부분은 이별의 고통과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소망과 연모(戀慕)의 정을 노래한 8행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사랑의 정(情)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노래한 16행까지, 마지막 부분은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마지막 행까지이다. <서경별곡>의 둘째 연은 <정석가>의 여섯째 연과 일치한다. 이것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 그대로 채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괴익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른 아즐가  
여히므른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즈믄희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信잇돈 아즐가

信잇돈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너분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넬빅예 아즐가  
넬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짓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악장가사(樂章歌詞)』

<서경별곡>에서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떠나는 입에 대한 애원의 마음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1연에서 ‘괴시란디 아즐가 /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의 시구를 통해 임께서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을 통해 나타냈고, 2연의 ‘구스리

아즐가 /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에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처리하여 입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결코 끊어지고 변할 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3연의 '大同江 아즐가 / 大同江 너븐디 몰라셔'와 '大同江 아즐가 / 大同江 건넌편 고즐여'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대동강의 넓은 모습을 통해 입이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통해 입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2.3. 교수-학습의 방향 및 설계

일상적 생활에서 '물'은 인간에게 친근하고 필수불가결적인 물질이다.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시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작용에 있어서, 시적 의미가 미운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 근원을 형성시켜온 원형적 이미지라는 잣대로서 심도 깊게 파악될 때에는 깊고 풍부한 상징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별곡> 3연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운명의 한 타입이며, 그것도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 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로

자연스럽게 자유연상을 시킨다.

<표3>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

‘물’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자유연상

1. 기존의 문학 작품 가운데 ‘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선수 학습된 문학 작품 가운데서 ‘물’은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로서 형상화되었고, 주제 의식의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공무도하가

3. 삶의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대하는 물의 존재 양식에 대해, 기존의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진 물의 이미지들에 있어서,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4.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 강, 바다, 호수 등 각각 물의 이미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해본다.(‘물’의 이미지는 물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자연물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상상력이 증폭될 수 있다. 흘러가는 속성을 지닌 ‘시내, 강’의 이미지를 통해 구축되는 삶의 시간성과 역사성, 원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다’ 등 개개의 자연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모색한다.)

예) 강, 바다, 시내

5. 일상의 삶 속에서 ‘물’의 기능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질과 상징적인 의미와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6. <서경별곡>에서 연상되는 물의 의미는 어떠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표4>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지도 방안  
<서경별곡>을 기본 텍스트로

	전개 내용	단계별 유의 사항
도입	1) 동기 유발 단계 ⇒ 선수 학습된 문학 작품들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에 대해 토의한다.	개별적 감상단계를 거쳐서 그룹별 토의 발표 단계로 이어진다.
전개	2) 텍스트 접근 ⇒ 이 작품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작품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한 이미지들이 주제 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의 원형적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성으로서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정리	<p>가?</p> <p>⇒ 형상화 된 ‘물’의 원형적 정서에 대해 정리, 발표한다.</p> <p>⇒ ‘물’이라는 물질이 정서적으로 환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p> <p>3) 내면화 단계</p> <p>⇒ ‘물’이 갖는 다양한 원형성 가운데, 다른 이미지를 택하여 창작한다.</p> <p>⇒ ‘물’이 갖는 다양한 원형적 이미지를 살려서 구축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본다.</p> <p>⇒ 상호텍스터에 의한 감상단계</p> <p>고대가요인 ‘공무도하가’ 텍스트의 ‘물’의 이미지 분석, 원형적 이미지 분석</p>	<p>살려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한다.</p>
----	--	-------------------------------

## IV. 이미지를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실제

### 1. 교수 - 학습 계획

고전시가 교육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자들의 부정적 인식 태도이다. 부정적 인식은 고려속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고전시가 문학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시가문학 지도를 지나칠 정도로 가치론적으로 접근하여 고전시가 문학이 지니는 독특한 예술적인 면을 사장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학의 본질적인 국면, 곧 고전시가를 문학적 상상력의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나 매개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중심의 수업 방식이나 해석 위주의 기술적 수업 방식이 모두 이러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 문학 교육의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단순히 표층에만 나타나는 일면만을 강조하는 수업의 형태이다. 그 까닭은 ‘고전시가’ 문학 지도를 대입수능의 평가유형에 맞추

어 해왔고, 그 평가유형 또한 감상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감상된 결과를 묻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이다.<sup>42)</sup> ‘고전시가’의 문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학의 향유 계층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상상과 언어의 압축에 의한 언어적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고전시가 문학은 단순히 옛 선조들에 의해 지어진 고정되고 굳어진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현재 독자들이 수용하여 자기화하는 살아 있는 문학인 것이다. 그래서 고려속가의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속가라는 문학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내용으로 삼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문학정서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로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하거나 혹은 내면화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이해는 정서를 일정한 지식의 형태로 설명하는 행위와 그것을 다시 일정한 지식의 형태로 수용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또 한 가지 고려속가의 지도내용으로 학습자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내면화는 특정한 문학정서를 가치화하는 행위와 그것을 다시 일정한 가치로서 자신의 신념체계에 통합하는 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sup>43)</sup>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정서를 대리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

42)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와 고려속가 교수-학습 모형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54.

43) 이병숙, 「중학교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세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p.8~10.

므로, 현실적으로 문학 감상교육은 내면화의 효과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는 문학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교육이 갖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며,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목표를 수동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 등의 차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설정된 목표와 교과서의 지도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 작품을 유기체적 존재, 살아 숨 쉬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sup>44)</sup>

첫째,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성과 독자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독창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최대한 펼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의 작품 해석이나 문학 현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이 세상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

44) 홍신선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03.

하다. 또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과도 통한다.

둘째, 실제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가운데 문학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문학교육은 실제 작품 수용과 창작 활동과는 별도로 인지적·정의적 교수 방법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문학 지식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에게 단기간의 암기나 행동 변화로 그치게 하여 장기간의 문학 능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하여 문학 능력의 신장을 돕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문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문학 문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고 수용과 창작의 풍부한 경험을 쌓음으로서 문학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닌 문학 주체를 기르는 일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에서는 국어과의 어느 영역보다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풍부한 경험이 강조된다. 문학 작품 한두 편을 정직하게 읽고 어찌다 독창적인 글쓰기를 선보이는 것보다는 평소 많은 작품을 읽고 꾸준히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문

학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학 현상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 된다.

넷째, 문학의 가치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문학의 여러 가지 가치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문학 활동은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답적이고 신비적인 활동이나 영역의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작품은 고정된 정전(正典)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교재나 작품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용될 수 있다. 이는 문학교육이 교재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자료로 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과 경험들을 조직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문학 과목에서는 열린 교재관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작품의 수용 활동은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문학 과목은 작품 수용 활동이 많아 강의나 강독 위주의 수업이 되기 쉽다. 이 같은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현장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특히 협동학습 모형이나 프로젝트법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곱째, 작품의 창작활동은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되, 자신의 삶과 밀접한 글쓰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과거의 문학 창작 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이나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문학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작품 창작활동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작품 수용 활동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존 작품의 개작, 모작 그리고 생활 서정의 표현이나 서사문 쓰기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이 때, 모든 학습자에게 전문적인 문예 작품 창작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재와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여덟째, 문학 활동은 언어 기능 교육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른 표현 매체와 통합된 양상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문학교육은 국어 교육의 중요 영역인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은 올바른 국어사 용을 위한 기능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교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학이 인접 예술과 상호 맞물려 있는 관계와 새로운 표현 매체와 결합되어 유통되는 방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아홉째, 고전 문학 작품은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전 문학은 우리의 민족 언어와 문화의 유산으로서 오늘의 문학과 일정한 상동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고전 문학을 익히되,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훈고 주석에 치우친 수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 가치가 나의 처지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문학 과목 지도는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면화 과정에서 중점을 둔다. 문학교육은 학교 교육이 끝난 뒤에도 평생 문학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결과가 내면화 · 영속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교수 - 학습 모형

개인의 삶과 환경과 배경 지식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학생들의 이러한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험과 가까운 것을 먼저 제시하여 상상하게 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작품 감상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품 낭독과 시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과제가 해결되었다면 작품에 드러난 원형적 이미지를 찾고 그와 관련된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 모형이란 용어의 사용은 교실 수업 상황의 변인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학습 이론들이 교사 중심보다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이론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반응 중심, 수용 미학 등 학습자 쪽을 강조하는 말들이 그러한 경향의 예들이다.

<표5> KEDI 시교육 단계의 교수-학습 모형

KEDI 시 교육 단계	공통적 교수요목	이미지 분석 및 감상 중심 적용 방식	독자반응 중심 교안
계획 단계	수업목표 설정 평가요목 설정	<b>⇒도입단계</b> 텍스트 접근 이미지 연상 작용 시상 파악	1단계 : 텍스트와 학생의 상호작용→심미적 독서

진단 단계	사전 진단 (선지식, 선 체험, 스키마 확인, 감 수성, 사전 인지 도 등)		
지도 단계	→전체적 접근 : 낭독 시적 분위기 파악	⇒전개단계 이미지의 유형 이미지의 분석 이미지화된 대상 분석	2단계 : 반응의 기록 반응에 대한 질문 반응에 대한 토의 및 발표
내면화 단계	→부분적 접근 : 율격, 구조(분절 적 접근) →통합적 접근 →발전적 접근, 토론, 발표, 내면화 : 개인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수직적 심 화	⇒정리단계 주제와의 연관성 고찰 상호텍스트 확대	3단계 : 반응의 심화 단계 상호텍스트성 확대 화

본 논고에서는 고려속가 <동동>의 이미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① 텍스트 읽기, ② 떠오르는 영상 · 심리 표현하기, ③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 ④ 주제와의 연관성 분석, ⑤ 토의를 통해 마무리한다.

## 2.1. 텍스트 읽기

작품의 감상은 인지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속한다. 이 점을 강조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상적 독해는 인지적 접근으로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상을 비롯하여 모든 정의적 반응은 인지적 이행 과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내용의 이해 없이 감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1.1. 전체적 느낌 형성하기

#### ① 제목 상상하기

제목은 작품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글의 소재나 주제에서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상징적 지시물이나 글의 어느 한 부분을 절취하여 제목으로 삼기도 하며, 주인공 이름이 제목이 되기도 한다. 작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목이다. 작품 읽기 전에 학생들에게 작품의 제목만을 보고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어떠한 내용의 작품이 전개될지, 그리고 그 제목이 주는 이미지는 어떠한지 상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형성하게 되

고, 보다 흥미를 가지고 작품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흥미유발 질문>**

⇒ <동동>이란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 무엇인가 떠 있는듯하다.
- 약기를 두드리는 것 같다.
- 안달이 나서 발을 구르는 것 같다.

⇒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 청각적 이미지 : 소리라는 측면
- 시각적 이미지 : 연주하거나 뛰는 모습

② 텍스트 읽기

고전시가 작품은 옛글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본적인 읽기는 가능하고 그 느낌 또한 각자 다르게 인식하리라 본다. 작품 감상에 있어서 작품의 낭독은 다른 모든 행위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견해는 고전시가 수업에서도 낭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낭독은 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시를 낭독하는 동안 시의 분위기와 리듬을 파악할 수 있고 시어의 구체성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의 낭독은 문자 언어를 단지 음성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45)</sup>

낭독테이프를 사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한 학생이 대표로 낭독하거나 전체 학생이 다 같이 작품을 낭독하는 방식을 취해도 좋을 것이다. 작품의 낭독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흥미유발 질문>

⇒ 작품을 낭독한 후 느껴지는 작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한 여인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임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 기도하는 모습 같다.

→ 우리의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것 같다.

→ 임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다.

⇒ 그 분위기는 어떤 시어를 통해 얻게 되었는가?

---

4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p.251.

- 어저 녹저 흥논디(正月), 넷나를 닛고신더(四月), 별해 브  
 룬 빗다호라 / 도라 보실 니물 / 적곰 좇니노이다(六月), 니  
 물 흥디 녀가져(七月), 니물 되셔 녀곤 / 오늘늬 嘉俳샏다  
 (八月), 저미연 브룻다호라(十月), 고우닐 스식음 녀셔(十一  
 月), 나술盤잇 저다호라(十二月) 등에서 한 여인의 외로움  
 과 고독과 그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 五月 五日애 아으 / 수릿날 아춤 藥은 / 즘른 힐 長存호샏  
 / 藥이라 받줍노이다(五月)에서 수릿날 아침에 님이 없지만  
 약을 받아 놓고 입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다.
- 二月의 연등제, 五月의 단오, 六月의 유두, 七月의 백중, 八  
 月의 한가위, 九月의 중양절 등에서 세시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 德으란 곰비에 받줍고 / 福으란 림비에 받줍고 / 德이여 福  
 이라 호닐 / 나스라 오소이다(1연), 二月스 보로매 아으 /  
 노피 현 燈스블 다호라 / 萬人 비취실 즘시샏다(二月) 등에  
 서 임에 대한 찬양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2.1.2. 시어 이해

문학적인 글이건 비문학적인 글이건 모든 종류의 글은 그 글을 이루고 있는 언어들을 알고 있을 때에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많은 경우 시에 사용된 언어들이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의미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기존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작품 감상에 앞서 학생들에게 모르는 단어나 어휘에 대해 알아오게 하거나 교사가 낯선 시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문맥 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의 작동 양상을 학생들이 찾아내게 한다.

#### <흥미유발 질문>

⇒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은 무엇인가?

→ 1연 - \* 곱비에 : 뒤에, 신령님께 \* 립비에 : 앞에, 임께. \*나

스라 : 드리러, 진상하러

2연 - 나릿뜨른 : 냇물은 \*누릿 : 세상의 \* 널셔 : 살아

가는구나. 지내는구나

3연 - \* 즈시샷다 : 모습이시도다

- 4연 - \*만춘(滿春) : 늦봄. 음력 3월 \*달빛고지여 : 진달래  
꽃이여
- 5연 - \*곶고리새여 : 꺾고리새여 \*녹사니문 : 녹사(緣事)  
님은 녹사는 고려 때 관직의 하나. 화자가 여성임을  
말해줌
- 6연 - \*즈른 힐 : 천 년을 \* 장존(長存)호살: 오래 사  
실
- 7연 - \*별해 : 벼랑에 \*브론 : 버린 \*적곰 : 조금, 잠  
간이나마
- 8연 - \*백종(百種) : 백중, 7월 15일은 백중일, 망혼일(亡魂  
日)이라 함, \*배(俳)호야 : 벌이여\*님을 혼디 너가져  
: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습노이다 : 비  
웁니다
- 9연 - \*피셔 녀곤 : 모시어 가매 \*가배(嘉俳)삿다 : 가윗  
날이로다
- 10연 - \*황화고지 : 국화꽃이 \*새셔 : 초가(草家)가
- 11연 - \*저미연 : 저민, 잘게 썰은 \*브룻 : 보리수나무
- 12연 - \*봉당 :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가 아닌 흙바닥이  
그대로 있는 곳 \*한삼 : 속적삼 \*고우닐 : 고운  
이를 , 사랑하는 입을

\*스식음 : 스스로, 제각기

13연 - \*분디남ㄱ로 : 분지나무로    \*나술 : 진상할, 차려 올  
릴

\*반(盤)잇 : 소반에의    \*저 : 젓가락    \*얼이노리 :  
가지런히 놓이니    \*므르습노이다 : 묻니다. 무웁니다.

## 2.2. 떠오르는 영상·심리 표현하기

우리가 시어의 이미지를 체험할 때, 그 언어가 지시하는 실제의 사물도 덮어 두고 비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환기력에 의하여 그 이미지를 다만 상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sup>46)</sup>

시어를 보고 떠오르는 영상을 그림이나 사진을 보듯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상상해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감적으로 이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억이나 연상을 통하여 상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나 연상을 통하여 상상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달을 과일로, 가을밤을 동해바다의 물로, 달빛을 호수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sup>47)</sup> 이때, 어떤 특별한 기억(추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좋다.

46)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6. p.238.

47) 이성관, 「시 창작력 신장을 위한 고찰 : 중등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눈에 관련된 개인적이면서도 인상적인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우리만큼 특별한 생각들을 자극케 하는 동시에 집단 의식을 일깨워 줄 것인데, 그 집단 의식으로부터 각각의 개인은 어느 정도 영감을 얻어낼 수 있다.<sup>48)</sup>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시에 나타난 상황들을 적절히 연결할 수 있도록 상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만약에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을 전혀 상상할 수 없으면, 지도 교사의 체험이나 수필 등에서 읽은 간접 체험을 소개하여 시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체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 교사의 수업 방법의 세련됨에서 기인될 것이다.

이 때, 각 장면 하나하나를 어떠한 질서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각 장면마다의 이미지를 통하여 상상력의 훈련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미지를 상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계절이나 배경을 통한 상상, 둘째 물체를 통한 상상, 셋째 소리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찾고 어울리는 음악을 생각한다. 넷째 향기 또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찾고 어떤 냄새인지 생각해 본다. 이를 <동동>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47~48.

48) 이성관, 앞의 책, p.35.

**<흥미유발 질문>**

⇒ 계절이나 배경을 통해 무엇이 생각나는가?

- 2월령, 3월령, 4월령 - 봄 :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동산에 피꼬리가 날아와지절대며 날아다니는 가운데 외롭게 경치를 구경하는 여인의 모습
- 5월령, 6월령, 7월령 - 여름 : 단오 날 한 여인이 임에게 드릴 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과 유두날 머리감고 목욕한 후 입을 위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
- 8월령, 9월령, 10월령 - 가을 : 국화꽃이 가득한 집안엔 한가위의 풍성함이 넘치는 데 뒷산의 보리수나무는 앙상함만 간직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 11월령, 12월령, 1월령 - 겨울 : 추운 겨울 밤, 맨 바닥인 봉당 자리에 홀적삼 하나를 덮고 누워 생각하니 임 생각에 눈물 흘리며 지나간 밤을 새우는 여인의 모습

⇒ 원형적 이미지인 ‘물’, ‘꽃’에 대해 떠오르는 영상은?(물체를 통한 상상)

- ‘물’은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양수를 생각하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  
고 이는 다시 태어남의 의미(재생)라 생각한다.

→ ‘물’은 죽음을 생각나게 한다. : ‘공무도하가’에 나오는 백수  
광부의 죽음은 ‘물’이다. ‘물’은 인연의 죽음 곧 헤어짐의 의  
미라 볼 수 있다.

→ ‘물’은 역사책이 생각이 난다. :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이 역  
사이듯 넷물 또한 영속적인 흐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변  
하고 성장하여 이루어진 역사책이라 생각한다.

→ ‘꽃’은 아름다운 여인이 생각난다. : 동양이나 서양이나 ‘꽃’  
은 여인의 표상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 ‘꽃’은 영원한 사랑이 생각난다. : 꽃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  
고 꽃을 통해 자신의 신앙(散花功德)을 표현하기도 한다.

→ ‘꽃’은 이상향이 생각난다. : 꽃 중에 ‘복숭아꽃’은 무릉도원  
을 생각나게 한다.

⇒ 소리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찾고 어울리는 음악을 생각한  
다.

→ ‘아으 動動다리’ : 민요 ‘꽤지나 칭칭나네’

→ ‘正月入 나릿뜨른 아으’ : 동요(윤석중) ‘봄바람’

→ ‘오실셔 곶고리새여’ : 가요(서영은) ‘너에게로 또다시’

⇒ 향기 또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찾고 떠오른 생각은?

→ ‘수릿날 아춤 藥은’ : 입을 위해 정성을 다해 다려 놓은 약 냄새가 진동한다. 하지만 입은 곁에 없고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깊어간다.

→ ‘藥이라 먹논 黃花 / 고지 안해 드니’ : 중앙절의 국화향이 가득한 집안의 풍경과 황화전의 냄새는 흥겨움을 더하지만 홀로 있어야 하는 화자의 외로움이 느껴진다.

### 2.3.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

작품의 내적인 감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작품과 관계있는 다른 요소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작품에 따라 각기 다른 요소들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인데, <정과정>의 경우 오랜 유배 생활에서 생긴 정서의 한과 괴로움이 접동새에 가탁되면서 임인 명종을 향해 처완(棲腕)하게 노래<sup>49)</sup>하였다고 하여 연모(戀慕)의 형태를 빌려 연군을 노래하였고,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이별의 정한을

---

49) 김캐덕, 앞의 책, p.177.

노래한 고려속요이며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가 여성적이라는 데에는 공통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가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고(忍苦)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서경별곡>의 서정적 자아는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고려시대 서경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희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서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 있는 '가시리'와는 달리 이 작품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3연에 나타나는 '사공'과 '그의 아내'의 노래에서 떠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곧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골계적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랑이 깊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질투도 강하다는 여인의 본능적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정석가>의 경우 작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2연부터 5연까지는 소재만 달리 했을 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설정해 놓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즉, 2연에서는 '구운밤', 3연은 '옥련꽃', 4연은 '무쇠옷', 5연은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놓고(이 소재들은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불가능의 전제 조건이다.) 영원히 임과 헤어질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문학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위주로 작가의

의도를 시구들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표6> 시구를 통해 살펴본 고려속가의 작가 의도

작 품	시 구	작가의 의도
<서경별곡>	여히므론 질삼뵈 버리시고 / 괴 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이별(離別)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동동>	八月入 보로몬 아으 / 嘉俳나리 마른 / 니를 피셔 녀곤 / 오늘늬 嘉俳샷다	연모(戀慕)
<정과정>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 셔	
<사모곡>	어마님 ㄹ티 괴시리 업세라.	사친(思親)
<상저가>	게우즌 바비나 지셔히애 아버님 어머님찌 받좁고 히야해	
<쌍화점>	괴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 괴 잔 디 ㄹ티 덮거츨니 업다	남녀상열지사 (男女相悅之詞)
<만전춘 별사>	금수산 이불 안에서 사향 각시를 안고 누워, / 사향이 든(향기로 운) 가슴을 맞추십시다. 맞추십 시다	
<이상곡>	잠짜간 내 니를 너겨 깃든 열명길헤 자라오리잇가	
<처용가>	처용 아비만 본다면	주술(呪術)

	열병신(熱病神)이야 헛감이로다	
<청산별곡>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무상감(無常感)

고려속가가 현세적, 향락적(享樂的)이며, 주로 남녀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들의 삶에 드러나는 정서를 숨김없이 표현함으로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작자가 ‘정서’와 같은 개인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도 터러 있지만, 민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궁중에 유입되어 속악가사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대개 작자가 불명인 경우가 많다.<sup>50)</sup> 작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작품 속에 드러난 시구들을 통해 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을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2.4. 주제와의 연관성 분석

작가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실한 ‘그 무엇’이 있어서 작품을 쓸 것이다. 바로 ‘그 무엇’이 주제이다. 주제는 작품의 내용을 형성하는 중심 의도이자, 중심 사상이다.

50) 김쾌덕, 앞의 책, p.25.

주제가 먼저 설정되고 나면, 많은 소재 가운데 적절한 제재를 선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무엇을 사용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많은 소재 가운데 선정된 것이 제재이다. 제재가 선택되면, 작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와 기법으로 살을 붙여 한편의 작품을 창조해 낸다.<sup>51)</sup> 작품의 시어나 시구는 하나의 제재로 작가의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그 작품의 주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시어나 시구의 의미나 연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면 작가의 의도에 맞는 해석과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를 <동동>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7> 제재와 주제와의 연관성

연	제 재	주 제
1연	송축	입에 대한 송축
2연	나릿물	자신의 외로운 처지
3연	등스불	입의 빼어난 모습 찬양
4연	달릿곳	입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
5연	꽃고리	자신을 찾지 않는 입에 대한

51) 박경신 외, 『문학 교과서(상)』, 금성출판사, 2006, p.132.

		원망
6연	단오 : 아침약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
7연	유두절 : 빗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비관
8연	백중	임을 따르고자 하는 염원
9연	한가위	임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10연	중양절 : 황화(黃花)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
11연	바랏(보리수나무)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회한
12연	한삼(汗衫)	임 없이 살아가는 슬픔 - 독수공방의 외로움
13연	저(나무젓가락)	임과 맺어지지 못하는 인연의 기구함

## 2.5. 토의

토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자세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참여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거나 토의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면 리더가 아무리 훌륭해도 토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의 그룹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사항들은 대단히 많다.

토의수업 상태에서의 참여자, 또는 구성원은 주로 학생을 뜻한다. 물론 토의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토의의 리더가 되는 수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적인 토의의 절차로는 ① 토의를 시작하기 ②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 ③ 토의를 민주적으로 잘 진행하기 ④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⑤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⑥ 토의를 잘 끝내기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각자가 도출한 생각들을 모듬을 통해 토의를 거쳐 종합적인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를 한다. 각 모듬간의 이견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견에 대한 발문을 재기함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단순히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위주의 고전 문학 수업보다 더 활기찬 학습자 위주의 수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동동>에 적용하여 토의의 발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흥미유발 질문>

⇒ 이 작품은 월령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문학적 효과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 이 작품은 자연을 노래하면서 인생살이를 문제삼고 있다. 자연과 인생과 인생을 견주어서 나타내는 달거리 형식은 옹고 있는 내용을 더욱 절실히 전달해 주고, 인생에서의 문제가 자연의 변화에 비

유되어 작자의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하여 연가(戀歌) 겸 송사(頌詞)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작품을 송도지사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 전체의 내용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서사가 붙어 있다는 형식적 특이성 때문에 그 서사를 작품 전체의 구조적 완결성과는 무관하게 덧붙여진 송도지사라고 본다. 1연이 민간에 유행하던 민요를 궁중 악곡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덧붙여진 송축지사라고 볼 때, 이 작품은 님과의 이별을 노래한 연가와 송사의 성격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동동>과 <농가월령가>(정학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해보자.

→ 월령체라는 데는 공통적이지만 <동동>은 서정적이지만, <농가월령가>는 교술적이다.

### 3. 고려속가 작품의 교수-학습 과정안

#### 3.1. <동동> 교수-학습 과정안

<표8> <동동>의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동동>		대상	차시		
학습 목표	1. 시적 화자의 정서를 말할 수 있다. 2. 이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민속의 의미와 연계하여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인터넷에 연결된 PC 1대, 프로젝트TV, PPT		교과서, 과제장, PPT자료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학습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 학습동기 유발,	- 작품 감상을 위한 태도를 갖춘다.		설명 PPT 인터넷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
	학습 목표 제시	- 민요 감상 - 학습목표 제시	- 민요 감상 - 학습목표 확인			
전개	기초 학습 리	- 고려속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정리	- 고려속가와 관련한 용어 익히기		과제장을 통한 발표	민요적 특성에 주목한다.
		- 제목 상상하기	-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			

자기 주도적 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동동&gt; 낭독하기</li> <li>- &lt;동동&gt;의 분위기 익히기</li> <li>- &lt;동동&gt;의 짜임</li> <li>- 작품의 최초 감상</li> <li>-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li> <li>- 모듬별 토론을 거쳐 모듬 대표가 발표</li> </ul>	<p>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동동&gt;의 시어를 활용한 연상하기</li> <li>- 시상 파악하기</li> <li>- 이미지 유형 파악</li> <li>- 원형적 · 감각적 이미지 파악</li> <li>- 이미지 분석</li> <li>- 이미지화된 대상 분석</li> <li>- 다른 모듬의 발표를 듣고 공통점을 찾고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함.</li> </ul>	모듬별 토의 학습	진지한 태도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면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내재적 접근</li> <li>-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 보아 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 측면 및 내용적 측면 종합 정리</li> <li>- 주제와 연관성 살펴보기</li> </ul>	개별 학습	내면화가 유도될 수 있게

		화자의 처지를 이해함.			한다.
정리 평가	평가 및 적용	- 형성평가 - 학습지를 통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에 대해 답하게 한다.	- 시어의 의미상 관계 - 화자의 태도 - 비유적 표현 - 과제 내용 숙지	문답 학습	본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차시의 과제를 숙지하게 한다.

### 3.2 <서경별곡> 교수-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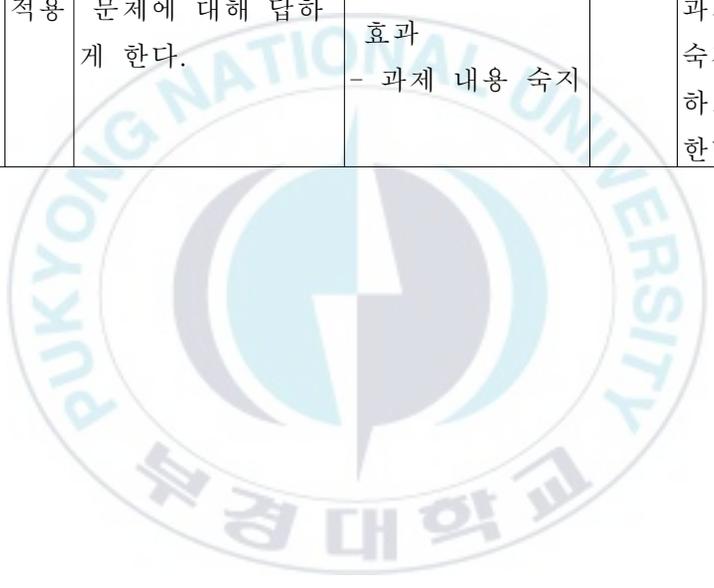
<표9> <서경별곡>의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서경별곡>		대상	차시
학습 목표	1. 시적 화자의 정서를 말할 수 있다. 2. 이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작품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인터넷에		교과서, 과제장, PPT자료	

		연결된 PC 1대, 프로젝션TV, PPT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학습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 학습동기 유발- 김기태'님아 님아 님아'란 노래를 들려준다.	- 작품 감상을 위한 태도를 갖춘다	설명 PPT 인터넷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
	학습 목표 제시	- 전문 감상 - 학습목표제시	- 학습목표 확인		
전개	기초 학습	- 창작의 시대적 배경 - 제목 상상하기 - <서경별곡> 낭독하기 - <서경별곡>의 분위기 익히기 - <서경별곡>의 짜임	- <서경별곡>의 창작의 시대적 배경 추리 -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 낭독에 맞추어 전문 감상 - 고려속가의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분위기 파악	과제장을 통한 발표	이 별 노래의 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자기 주도적	- 작품의 최초 감상	- <서경별곡>의 시어를 활용한 연상하기		

	<p>체험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li> <li>- 어휘 해석</li> <li>- 모듈별 토론을 거쳐 모듈 대표가 발표</li> <li>- 주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파악하기</li> <li>- 이미지 유형 파악</li> <li>- 원형적 · 감각적 이미지 파악</li> <li>- 이미지 분석</li> <li>- 이미지화된 대상 분석</li> <li>- 과제장을 중심으로 어휘를 정리</li> <li>- 다른 모듈의 발표를 듣고 공통점을 찾고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함.</li> <li>- 주제 이해</li> </ul>	<p>토의 학습</p>	<p>태도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내면화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연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 모듈별 활동이 되도록 한다.</li> <li>- 화자의 정서를 글로 표현하기. 개인별로 쓰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을 그림으로 그린다. 모듈에서 한 연씩 그리기</li> <li>- 자신이 화자가 되어 떠나는 임에게 편지 쓰기. 개</li> </ul>	<p>개별 학습 및 모듈 학습</p>	<p>내면화가 유도될 수 있게 한다.</p>

			인별 편지 쓰기.		
정리 평가	평가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평가</li> <li>- 학습지를 통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에 대해 답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시어</li> <li>- 화자가 다른 연</li> <li>- 이미지의 사용 효과</li> <li>- 과제 내용 숙지</li> </ul>	문답 학습	본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차시의 과제를 숙지 하게 한다.



## V. 이미지를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

하나의 시가 시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하는 것은 이미지의 작용, 이미지 층위에 의해서이며, 상상력의 중심엔 다양한 이미지의 변용, 감각화된 이미지들이 내재해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정시는 남다른 예술적 상상력의 구체적 산물이다. 시적 상상력은 여러 가지 사물들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전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시적 상상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는 시적 세계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적 상상력과 이미지의 연관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하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은 인류 보편적 상징성을 띤 자연물들을 대상으로 형상화시킨 작품들로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 세계관 등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원형적 이미지의 경우 어떤 다른 이미지 유형보다도 보편적인 상상력과 의식의 반영으로서 사람이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심층의 기저에 공유된 세계로부터 퍼 올린 정신 유산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문학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념적이며 유추적인 사고 등 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폭넓은 사유방식과 관념적 상상력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꽃’에 관한 원형적 이미지의 경우, ‘꽃’이라는 존재가 표상하는 미적 가치, 생명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상력의 원형적 성격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자연공간에서 자라고 인간의 삶 속에 가까이 존재해 온 ‘꽃’은 물질적 존재로서는 연약하고 대체로 짧은 수명을 지니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꽃’의 존재 의미는 사전적 정의보다도 예술적, 심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꽃이 지닌 빛깔과 향기의 다양함만큼이나 다양하게 시적 공간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려내게 한다.

고려속가에 나타난 ‘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 - <동동>’, ‘임과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마음 - <정석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탄식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것 - <만전춘별사>’ 등 작자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를 대신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물’의 이미지의 경우, 근원적 상징성을 띠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재생과 회복, 그리고 회귀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발원지요 고향으로서 동경과 그리움의 시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인간의 원형적인 집단무의식 속에는 그들의 원초적 삶이 잉태되었던 생명의 발상지에서의 향수가 내재해있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상적 생활에서 ‘물’은 인간에게 친근하고 필수불가결적인 물질들이다.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시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작용에 있어서, 시적 의미가 미온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 근원을 형성시켜온 원형적 이미지라는 잣대로서 심도 깊게 파악될 때에는 깊고 풍부한 상징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별곡> 3연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운명의 한 타입이며, 그것도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 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원형적 이미지 가운데, 세 번째로 ‘달’의 이미지의 경우 ‘달’은 어떤 문화권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형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달은 찾다가 기울고 다시 차는

속성으로 인해 분리와 합일, 충만함과 이지러짐의 이미지를 갖는다.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속성으로 인해 소망과 기원의 이미지도 내포한다. <정과정>에 나오는 ‘殘月曉星’의 경우 ‘달’을 천지신명이나 가장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자인 절대적 존재로 보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읍사>의 ‘달’은 화자의 위치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쪽을 비추어주고 있는 매개체로서의 이미지이다.

다음으로, 감각적 이미지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적 이미지는 감각적 사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학 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시가 창작 주체의 감각적 사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 체험을 통한 시적 감수성을 체득하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감각적 이미지는 이미지 유형가운데서도, 시인의 독특한 감성, 개성의 발현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며, 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동동>은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내포되어 있어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력을 키우기에 적절한 작품임을 확인하였고, <서경별곡>은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의 마음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청산별곡> 또한

다양한 이미지의 사용으로 우수와 해학을 바탕으로 삶의 고통과 비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고려속가의 경우 특히 청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후렴구의 사용을 볼 수 있는 데, 분석 작품으로 살펴본 <청산별곡>의 후렴구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경우 자음 전부가 ‘ㅇ’과 ‘ㄹ’의 유성음으로 되어 있는 데, 이와 같은 음의 배치는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와 가요의 색깔을 한껏 증폭시킴으로써 노래의 흥취와 활력을 돋우고 있다. <동동>의 ‘아으 動動다리’나, <서경별곡>의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다리’ 역시 음악성과 조흥의 의미를 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음은 음악의 원초적 형태라 할 만큼 민요에서는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며, 속가의 경우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속가의 원가(原歌)는 주로 민간가요였다는 점과 또 그것이 속악가사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악률상 필요에 의하여 더 많은 여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음의 일반적 기능은 의미를 강조하거나 리듬을 맞추며 감정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가사가 지닌 의미적 한계성을 극복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후렴구는 연과 연을 나누어 주는 연분리의 기능과 함께 조흥의 구실도 하며, 속가를 장가화(長歌化)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또 는 조흥구는 속가에서 조흥의 역할을 하면서 노래 분위기의 상

승과 정서적 공명을 촉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sup>52)</sup> 이러한 후렴구의 반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손동작이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상상력을 확장하게 한다.

학습자가 시적 화자가 되고, 새로운 주체적 수용자가 되어서 작품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미지는 시의 주제나, 시인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핵심적 언어 장치이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전시가 경우 그러한 논의가 미미했고,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적어, 고전하면 어렵다는 공식만 제공하여 학습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초래한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학습자들이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를 발견하고 주제 형상화에 어떤 작용을 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상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미지의 특질들을 파악하여 작품을 이해하며, 상상력을 동원하고 확대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문학교육이 표방하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

52) 김쾌덕, 앞의 책, p.40.

## VI. 결론

지금까지 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지의 창출과 변용을 통해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고전 문학 중 고려속가에 나타난 이미지가 어떠한 유형으로 표출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도가 학습자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고, 그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교수-학습 모형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고려속가에서 본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연구사를 살펴본 후 이미지 중심의 작품 접근이 가능한 지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II 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이미지의 기능과 분류 방식, 그리고, 시 교육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통한 접근 방식의 의미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III 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 교육 활동에서 논의되는 원형적 이미지와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동>과 <서경별곡>을 분석하였고, 교수 학습의 방향 점을 모색해보았다. 원형적 이미지의 경우 어떤 다른 이미지 유형보다도 보편적인 상상

력과 의식의 반영으로서 사람이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심층의 기저에 공유된 세계로부터 꺼 올린 정신 유산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문학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감각적 이미지의 경우 작자가 자신의 사고를 감각적 사고로 전환하여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각적 이미지나 관념적 이미지를 감각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만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작자가 지각한 세계를 독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작품 이해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감각적 이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IV장에서는 이미지를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실제에서 1. 텍스트 읽기 2. 떠오르는 영상 · 심리 표현하기 3.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 4. 주제와의 연관성 분석 5.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으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동>에 접목시켜 모색하였다.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여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고민하며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V장에서는 이미지를 통한 고려속가 교육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상정해보았다. 모든 서정시는 남다른 예술적 상상력의 구체적 산물이다. 시적 상상력은 여러 가지 사물들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창조한다.

시적 상상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는 시적 세계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적 상상력과 이미지의 연관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하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지로서 자신의 관념 및 정서 · 사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감상력이 신장되고, 내면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속가 중 <동동>과 <서경별곡>에 나타난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기감정과 사물 혹은 그 사물에 반영된 상상력과 감정적 경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과 주제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작품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차원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학습 모형을 설정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하도록 교육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이미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의 일환으로 이미지 중심의 작품 분석을 고려속가 이해에 적용하여 고전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 총론,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 총론, 200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4』, 교육인적자원부, 1997.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권영민, 『문학교과서(하)』, 지학사, 1996.

권순궁, 『역사와 문학적 진실』, 살림터, 1997.

김무현, 『향가 여요 교육론』, 집문당, 1997.

김사업, 『개고 국문학사』, 정음사, 1954.

김완진, 「청산별곡의 ‘사슴’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1982.

김열규, 「고려사회의 민속과 무속」,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82.

- 김준오, 『시론』, 삼지사, 1997.
- 김쾌덕, 『고려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김학동, 『정지용 연구』, 새문사, 1988.
-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7.
- 김홍규, 「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 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6.
- 박경신 외, 『문학교과서(상)』, 금성출판사, 2006.
- 박병채, 『고려속요의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73.
- 박진태, 『한국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4.
- 신동욱,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 양왕용, 『현대시 교육론』, 삼지원, 2000.
-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71.
- 염은열, 「시교육과 고전」, 『현대시 교육론』, 시와 시학사, 1996.
- 오세영, 『20세기 한국시의 표정』, 국학자료원, 2002.
-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p.28.
-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 이능우, 「고려가요의 성격」, 『고려가요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정음사, 1982.

- 이능우, 『고시가론고』, 숙명여자대학출판부, 1983.
-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7.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4.
- 임기중 편저, 『우리의 옛노래』, 현암사, 1993.
- 임동권, 「동동의 해석」,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 장도준, 『현대시론』, 태학사, 1995.
- 전규태, 『고려가요의 연구』, 백문사, 1993.
-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85.
- 허 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 홍신선 외,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03.
- 로저 세텍, 「목소리로(Viva Voce)」, 『비평과 문학교육』, 포올  
헤르나리 엮음, 최상규 역,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 C. Day. Lewis, 『The Poetic Image』, A.W.Bain& Co.Ltd. London.  
1958.
- 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
- Gaston Bachelard, 정영한 역, 『공기와 꿈』, 민음사, 1993.
- H. R. 야누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장영태 역, 문학과 지성  
사, 1993.
- N.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T. E. Hulme외, 윤지관 역,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 2. 논문

권오경, 「제7차 교육 과정과 시가문학교육」, 『안동어문학』 4집, 안동어문학회, 1999.

고연정, 「고전시를 이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 전통이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현숙,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 고등학교 국어(상)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김형규, 「고전 교육의 목적과 교재의 내용」, 『교육』 19, 수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회, 1984.

김혜영, 「청산별곡의 감상 지도 방안 모색」,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

- 의 수업전개 방법」, 『미원 우인섭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1986.
- 박경주, 「고전 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시가교육을 중심으로」, 『고전 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 문학회, 1999.
- 서종문, 「고전 문학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2001.
- 손은정, 「현대시 감상 교육방법 연구 : 상상력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2003.
- 이병숙, 「중학교 문학교육의 방향연구」, 세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상익, 「고전 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운정이상익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1994.
- 이성관, 「시 창작력 신장을 위한 고찰 : 중등학교 시 교육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유지, 「고려속요의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정도, 「고려속요 교육론」,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기중, 「고려가요 동동」, 『고려가요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 정음사, 1978.
- 정구향, 「제7차 문학교육 과정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한주섭, 「한국문학 교육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황경혜,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왕욱,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고전 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 허왕욱,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읽기」, 『청람어문교육』 26집, 2003.
- 홍신선, 「꽃 혹은 생명에의 원초적 집착」,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74.